

“이제 종교도 디지털이다”

종교문화 콘텐츠화 방향 학술대회

디지털세상에서 가장 유용한 종교 문화콘텐츠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유무형의 종교문화들이 어떻게 콘텐츠로 가공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찰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종교사학회(회장 양은웅)는 원광대종교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11

연구논문들은 현재의 현상을 단순 진단하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을 남겼지만 중국과 일본에서 종교문화가 어떻게 정보사회에 적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평가받고 있다.

보존 전송, 전문문화에 대한 대중적 이해의 증진, 영화·캐릭터 등 문화산업의 기초 자료 제공 등의 기대 효과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작업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인문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국종교사학회 양은웅 회장은 “문화의 시대, 지식정보화사회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에 있어 인류는 종교로부터 무엇을 얻으며 과연 종교는 이러한 인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가 최근 종교계 내지 종교학계에 가장 큰 이슈”라며 “한국의 종교문화를 콘텐츠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답해보는 작업을 통해 종교문화가 진작되면서 종교 그 자체가 민중의 귀의처로서의 의미를 거듭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학술대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홍피 전유물 아닌 시대 반영 돼야 인문학자들의 적극적 참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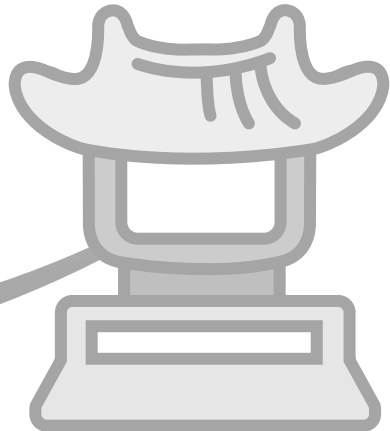
월 29일 서울 브래핑백화점 종교문화센터에서 ‘한국종교문화의 콘텐츠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2003년 한국종교문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한림대 한림과학원 정진홍 교수(한국종교문화의 전개와 일본 일교대(一橋大) 안환량부(安丸良夫) 명예교수(종교문화의 사상적 어퍼치)가 기초 강연을 했고 7명의 국내외 학자들이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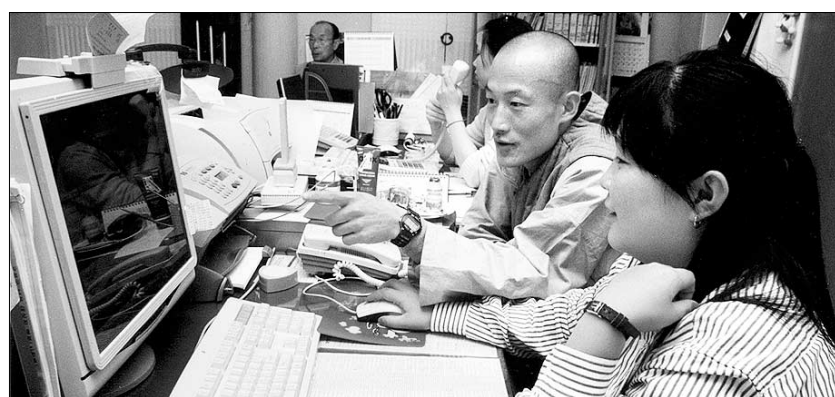
“한국문화 콘텐츠화의 현대적 과제”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한 원광대 한문학과 이남희 교수도 “전통문화와 첨단 기술의 접목은 기록 문화 자료의

觀自在菩薩行心般若波羅蜜多時照見五蘊皆空度一切苦厄舍利...



전남 장성 백양사 (www.baekyangsa.org)

정보마인드 공유 백양사의 또다른 힘



백양사 원주 광덕 스님과 전산담당 중무원 장세실 씨가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지난 2000년 8월 19일 전남 장성 백양사에서는 ‘한국 조사선 전통의 재확립과 참사람 결사의 새로운 세계’라는 주제로 참사람 무차법회가 열렸다. 전국의 선방 수좌를 비롯해 많은 불자들이 무차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백양사를 찾았다. 당시 많은 네티즌 불자들은 또다른 놀라움을 경험했다. 전남 장성, 그것도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천년고찰에서 열리는 법회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1400여년의 전통을 지

노트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이메일을 통해 보고서를 받는 등 스님들이 앉아서 정보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 사중의 정보마인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백양사 홈페이지는 정보사회에 앞서가는 백양사의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방장 서용 스님의 법문을 볼 수 있고 소임 스님들이 올리는 수행이야기 산중환담도 불자들이 스님들의 생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백양사에서 펼쳐

무차법회 생중계 할 정도로 기술력 ‘튼튼’

인등, 경전 서비스 등 신행공간 역할 ‘특특’

닌 백양사는 이미 전통사찰이리라 보다 현대를 앞서가는 사찰이었다. 그 이후에도 백양사에서 열리는 무차대회는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되었고 많은 불자들이 큰스님의 법문을 가정에서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2000년도에 이미 무차대회를 생중계할 정도였다면 백양사의 정보 인프라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이미 중무소는 물론 소임 스님방과 참사람 수행원 등 사찰 곳곳에 인터넷 선이 깔려 있고 전통 강원에서 컴퓨터실을 뒤 한스님들의 공부에 활용하고 있다. 사찰 소임을 맡은 진우, 현복 스님들은

고 있는 참사람 운동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사찰 수련법회 신청도 할 수 있어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외에도 사 이버 법당에는 금강경을 E-book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인등을 발휘할 수 있다.

정보사회에 앞서갈 수 있었던 것은 방장 서용 스님의 원력과 소임 스님들 간의 정보마인드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찍부터 중무소에 홈페이지 관리 전담 중무원을 배치하고 중무행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전통사찰 백양사를 현대사찰 백양사로 만든 원동력이 되고 있다. 김두식 기자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세계불교청년우의회 (http://www.wfby.org)



세계불교청년우의회(WFBY)는 19개국 37개 청년불교 단체가 모여 결성한 모임이다. 홈페이지에는 WFBY 소개와 각 지역 산하단체 연락처와 커뮤니티 등 다양한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WFBY는 2004년 1월 9-12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나눔과 하나됨’을 주제로 제3회 세계불교청년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IT 단신

국가지식정보 ‘대단해요!’

540여 기관, 1억 9500만건 서비스

국가문화유산 및 지식정보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국가지식포털’이 문을 열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은 문화유산, 예술, 과학기술, 역사 등 국가기관의 자료 1억 9500만건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지식포털(http://www.knowledge.go.kr)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월 1일 밝혔다. 국가지식포털은 국가기관의 검증된 전문지식을 무료로 음성, 동영상, 원문까지 볼 수 있는 서비스를 한다.

깨사만연보기

◎군포교에서 어려운 점은 보조금입니다. 병사 이승환군의 어머니과외의 소중한 인연으로 저희 만불사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쁨입니다. 병기엄마도리사다음카페 자유게시판

◎‘한생을 살면서 불법 만나기가 어렵다’ 했지만 우리나라에 수천개의 사찰이 있으니 그래도 불법 만나기는 쉬울 듯 합니다. 그러나 불법보다 해인수련 동문 되기가 불법 만나기보다 분명히 더 어렵겠지요. 초심 해인사수련동문회 다음카페 우리들의이야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생생한 내 업식의 비춤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향기롭게 가꾸어 가는 것이야말로 생활수행, 업장소멸의 공부입니다. 묵락소리 사파사는애기게시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받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주시는 본고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 HP 016) 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이젠! 깊은 산요초 향기를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일 공양 태우지 않아 연기없는 정각향 출시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법제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 것 같은 설레임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사용처

- 법당과 선방으로 배급되고 있습니다.
- 최고의 기법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
- 불자님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자동자각인까지 숲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제품속에 영연이 깎는 신비의 돌

경명이 참가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사용후

- 21가지 산요초와 솔잎, 난초국화, 물에 좋은 모과는 물론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해계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
- 마음이 편안한 향기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방의 냄새는 물론 담배생각까지 점점 줄어드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액각정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향 물질의 힘이 담긴 향알갱이를 하루에 한알(작은알은 두세알)씩 뚜껑에 보충시켜주십시오.
-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낭의 신비로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며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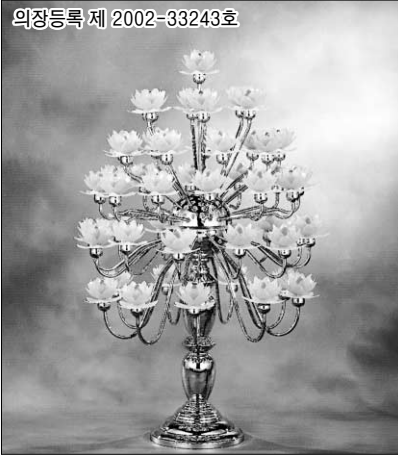


차량용

가정용

제조원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터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
입금계좌: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김도현

육법등 (六法燈)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이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등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탁소

(주)동원전기 주소: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화: 031)541-1417 / 팩스: 031)541-1419

충만 및 대리점 모집